

# 『핵전쟁』(랩, 램프 E)의 번역(1970)과 문학자 표문태의 반핵 운동

---

이행선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현대소설 전공

sh8017@naver.com

---

- I. 머리말: 핵의 위험성과 반핵
  - II. 『핵전쟁』의 번역과 핵무기 감축
  - III. 한반도 비핵지대화, 자주적 민족운동과 반핵평화통일
  - IV. 맺음말: 탈핵과 사회적 기억화
-

## I. 머리말: 핵의 위험성과 반핵

이 글은 한국 반핵운동의 선구자로 간주되는 문학자 표문태(表文台, 1914-2007)의 반핵 활동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일본의 동일본대지진(2011.3.11)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나면서<sup>1</sup> 한국에서도 방사능 오염과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세월호 사건(2014.4.16) 이후 한국인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재난에 더 민감해진 상황에서 발생한 경주지진(2016.9.12)의 충격은 한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켰고 막대한 피해와 이재민을 낳은 포항 촉발지진(2017.11.15)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일본 원전 가동의 실태와 문제를 지적한 히가시노 게이코의 소설 『천공의 별(天空の蜂)』(1995)이 2016년 9월 한국에 번역됐고, 강진과 원자력 발전소 폭발을 다룬 영화〈관도라〉(2016.12.7)는 경주지진과, 신고리 원전 5·6호기 반대 여론이 비등해지는 상황에서 제작되었다. 탈원전을 19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2017.5-2022.5)는 2018년 6월 경제성 부족을 내세워 월성 원전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고 2020년 8월 원전해체연구소 법인을 설립했다. 이는 국민의 불안이 표출된 결과이자 안전사회 구축을 바라는 사회적 염원의 반영이었다. 이 ‘불안’은 미래의 통제 불가능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의미가 강했다.

그러나 핵 문제는 당대의 현안이고 원전에 국한되지 않았다. 2020년 10월 발생한 일련의 장면은 현재 핵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의제를 다방면에서 확인하게 했다. 국내에서는 원전 노동자의 사망이 원전 하청과 위협의

---

1 「“방사능 공포에 고통”... 후쿠시마 18세 소녀의 호소」, 《연합뉴스》, 2014년 3월 8일자 참조.

외주화 문제를 다시 제기했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경제성을 낮게 평가한 잘못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발표와 일부 주민의 재가동 촉구 시위로 이어졌으며, 성주 사드기지 장비 반입 반대 시위가 있었다. 국외에서는 10월 27일 예고되었던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출 공식발표가 연기되었고, 미국 대선 토론에서는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가 북핵과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을 의제로 격돌했다. 또한 24일 유엔에서는 핵무기금지조약(TPNW)<sup>2</sup>이 2021년 1월 22일 공식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현상은 탈원전 갈등이 잠재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단면을 가시화 했으며 핵은 원전, 환경,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핵무기, 핵전쟁, 국가안보, 국제사회의 정치와 직결된 사안이었다.

이처럼 최근 한국사회가 핵을 사회적 의제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그동안 한국 반핵운동의 역사는 원자력 발전소와 핵폐기장 반대로 국한되었다.<sup>3</sup> 핵무기는 북핵 위기 이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면서도 원전 노동자 피폭문제는 간과되어 왔고, 원자폭탄 피해자는 일본 히로시마(広島)나 나가사키(長崎)에만 있는 것처럼 생각돼 왔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2017년 5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2016.5.29 제정)<sup>4</sup>이 시행되었다. 같은 달 한국인 원폭 피해자 3대를 다룬 김옥숙의

2 이 조약은 기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대체하는 국제사회의 약속으로 핵무기의 개발, 실험, 생산, 제조, 비축, 위협 등 모든 관련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한다. 2017년 7월 유엔 총회에서 122개국 찬성으로 의결됐다. 다만 미국 등 주요 핵보유국이 전부 불참했고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핵무기금지조약 내년 발효되지만... 핵보유국들 “인정 못해”」, 《한국일보》, 2020년 10월 25일자.

3 강은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한국』(Archive, 2012.3), 227쪽.

4 (약칭: 원폭 피해자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피해자”란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

장편소설 『홍터의 꽃』도 출간되었지만 별다른 조명을 받지 못했다. 이는 한국 일반사회의 핵 인식이 여전히 낮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원자력 발전소와 핵폐기장 반대 투쟁 주도의 반핵운동의 역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원폭투하에 의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고 이목을 끌지 못했다. 식민지배와 전후청산의 문제에서 ‘위안부’는 한일 양국의 주요 외교적 현안이 되어 있지만, 전쟁피해자의 한 축인 원폭 피해자의 실상은 사실상 거의 공론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리는 반핵 투쟁에서도 실제 핵 방사능 피해자인 원폭 피해자의 존재는 거의 가시화되지 않았다.<sup>5</sup> 원폭의 참상을 알리는 원폭 피해자의 호소와 경험이 공적 언어화되어 미디어의 공적 이슈로 전환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현실이다.

라돈침대, 아스팔트 방사능 등 생활방사능과 의료피폭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우리 자신의 ‘불안’만이 강조될 때, 이미 상존하는 피해자의 현실은 외면되고 있었던 것이다. 건강권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과 사회 변화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에 따른 민주주의의 발전 없이는 요원하다. 핵에너지의 소비자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개인은 생존권적 기본권 확보를 위한 자각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핵전쟁과

---

된 원자폭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2.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킬로미터 이내에 있었던 사람
  3.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 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5 이행선,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증언의 서사, 원폭문학: 김옥숙, 『홍터의 꽃』(2017)」, 『기억과 전망』 39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8), 151쪽.

생활안전에 무관심한 국민을 대신하여 이미 출선수범하여 반핵운동을 해온 운동가나 시민단체가 존재한다. 핵 위협의 공론화와 제도개선을 위해 힘쓴 이들의 노력이 사회적 기억화되어 축적되고 전해지지 않는다면 개인의 의식각성과 사회의 탈핵론 축적, 사회적 진보는 더딜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핵운동의 역사를 보다 대중화하고 사회화하는 ‘기억의 역사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한국 반핵운동의 선구자인 문학자 표문태의 반핵 활동을 고찰하고자 했다. 희곡, 수필, 소설을 쓴 표문태는 1970-1980년대에 반핵 운동을 했다. 표문태는 작가로서도 반핵운동가로서도 사실상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그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표문태의 이력을 살펴보자. 1914년 경남 밀양에서 출생해 외가에서 성장한 그는 경성 관립사범학교를 다니다가 일본 정부의 실화 현상문 모집에 4백자 원고지 30매를 써 보내 입상하고 오사카의 어떤 사람에게 초청 받았다. 이 초청장을 계기로 경성 사범대에 복귀하지 않고 도일, 오사카 거쳐 도쿄로 가서 문학을 수련했다. 1939년 일본 도쿄의 작가사에서 동인지 『작가』에 참가한 그는 1941년 귀국해 농촌계몽에 참여하는데 1942년 징용을 피해 경성으로 피신해 소개 나간 일본인의 빈집에서 생활하다가 1944년 경성매일신보 편집국에 입사했다. 해방 후 1945년 9월 조선중앙일보 기자로 입사한 그는 12월 조선청년문학자협회의 창설멤버(김동리, 조지훈, 서정주, 유치환, 조연현, 박두진 등)가 된다. 1946년 취재 중 그는 청년단에 강제 연행되어 이화장, 종로서에서 고문당하기도 했다. 1946년 민주일보 입사, 1947년 3·1특보사 입사한 그는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후 부역 혐의로 향토방위대에 연행되어 고문당하고 실신했다. 이후 그는 1951년 밀양에서 피난생활을 했고, 대한해양문화협회 기관지 편집국장, 『바다』 발간, 부산 수산대학 강사, 1952년 삼일신문 편집국장을 했다. 1953년 서울 수복, 피난 중 전거주지 해화동

동소문 아파트를 매수한 이승만의 심복 양우정에게 쫓겨난다. 1954년 서울 문화학원 강사, 1955년 서라벌고등학교 교사를 한 표문태는 1957년 정릉 산 14번지의 임야를 개간 무허가집에 입주했다. 그는 1960년 국회일보 주필을 맡았고 1961년 민족자주통일협회사건으로 옥고를 치렀으며 1962년 한국문인협회에 가입했다. 극심한 생활고 때문에 그는 1964년 월부서적 외판에도 종사했다. 이후 그는 1973년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작가회의 한국지부 창설준비위원회 대표를 하고 1976년 자유실천문인협회에 참여했으며, 1977년 동일방직 노임체불 대책위원, 동아투위 7·7언론자유 선언위원으로서 활동을 했고 1980년대 말까지 활발하게 사회참여를 했다.

이처럼 오랜 활동을 했지만 그는 스스로를 문단인이 아니라 방외인이라고 칭했다. 조선청년문학자협회 가담은 김동리가 범부 선생의 소개로 신문에 찾아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청년문학자협회는 정치하는 문학단체였다. 문학자동맹의 정치문학을 배격하는 또 하나의 정치문학단체였다. 계급문학을 배격하려면 계급을 초월한 민족문학이 필요했다. 프로문학이라는 계급문학을 배격하기 위하여 내세우는 순수문학도, 그 정치적 동기에 있어서나 문학하는 자세가, 프로계급과 대립하는 다른 계급의 이익과 현실적으로 결부되고 있는 엄연한 계급문학이었다. 순수문학은 글자 그대로 순수해야 했다. 작가도 순수해야 하고 문학도, 문학단체도 순수해야 한다. 그런 순수가 어디 있느냐고 묻지 말라.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계급문학 아닌 민족문학의 가능성을 나는 믿는 것이다. 나는 좌익 문인의 독선적 자유가 자유의 전부가 아님을 선언하고, 우익 문학단체에 참여했다가 우익적 자유의 무지와 편협에 실망하고 홀로 서게 되었다. 나는 오늘도 홀로 서 있다. 문학지에 발표한 작품은 『산악지대』와 『칠탄정야화』뿐이다. 문학이 없는 문학단체, 민족을 저버린 민족문학상은

나의 문학적 과욕과는 거리가 멀었다.”<sup>6</sup>

표문태는 문학지에 거의 작품을 발표하지 않고 문단의 이방인의 위치에서 작가 활동을 하며 판잣집이 3번 철거되는 궁핍 속에서도 다양한 사회운동을 한 셈이다. 1980년대까지 활발하게 사회참여를 실천한 표문태는 핵과 관련해 1970년 램프 E 랩의 『핵전쟁』을 번역했고, 1987년 징용피폭자를 다룬 『버림받은 사람들』을 편저했으며 『아시아를 비핵지대로』의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그래서 보통 표문태는 1969년부터 반핵 운동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워낙 남아있는 기록이 부족해서 그 행적의 전모를 밝히기가 쉽지 않지만 그의 반핵은 세계적으로 반핵의 목소리가 비등해진 1980년대 본격화 되었다. 1984년 표문태는 ‘세계비핵지대화운동 국제협의회한국지부 대표’를 맡았다.

요컨대 본고는 1970년과 1980년 무렵을 경계로 활동 시기를 구분하여 표문태의 당대 고민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선구적 존재는 어떠한 핵 인식을 가지고 핵문제 중 어떤 사안에 집중했을까. 그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게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그들의 문제가 사회적 의제가 되도록 힘썼을까. 핵이 한국에서 전혀 조명 받지 않던 시기에 이 선구자는 어떤 점을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록을 남겼을까. 지금처럼 뉴미디어의 언론환경, 뉴스의 과잉시대, 다양한 형태의 기록 미디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언론화, 소설을 매개로한 공론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한국에서 처음으로 반핵운동을 시작한 운동가는 어떤 입장이었을까. 표문태가 포착한 핵 위협의 내용과, 그 목소리를 공론화하는 전략, 반핵의 의미를 구명(究明)해 본다.

---

6 표문태, 『서러운 사람들』(일월서각, 1978), 20-21쪽.

## II. 『핵전쟁』의 번역과 핵무기 감축

이 장은 1970년대 말까지 표문태의 활동을 살펴본다. 표문태는 1970년 램프 E 램의 『핵전쟁』을 현암교양신서 시리즈로 번역 출간했다. 램 박사는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제2차 세계대전 중 맨해튼 프로젝트(핵무기 개발)의 일원으로 참여했으며 1946년 육군참모본부 과학고문, 1947-1948년 워싱턴 바네바 부시 연구·개발위원회 위원장, 1949년 국방부 원자연구·개발국 부장, 해군연구국 원자핵물리부장을 역임했다. 그 외 그는 미국의 원자력 관련 가장 권위 있는 핵과학자회보의 워싱턴 특별 에디터였고,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리포터》에 기고하는 동시에 의회 증언, 미국 전역에 걸친 강연 등 다양한 활약을 펼치던 원자력·우주 관련 저술가였다.

1970년대 한국은 사회운동의 태동기였다. 이는 국내에 관련 지식과 서적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이런 경우 해당 지식인은 외국서적으로 국내서의 부재를 대신하고 보완하기도 했다. 가령 한국 환경학의 선각자인 권숙표 박사(연세대 교수)는 1978년 아리요시 사와코(有吉佐和子)의 『복합오염』(1975)을 번역했고, 10년 후 환경시민운동가의 선각자인 최열도 이 소설을 번역했다.<sup>7</sup> 권숙표는 국민에게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보다 대중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일본의 베스트셀러 환경소설을 선택한 것인데, 표문태는 조금 내용이 어렵지만 국내에 없는 미국의 핵전문가를 자신의 반핵 논리의 토대로 삼고 대중에게 전파하는 전략을 취했던 것이다.

---

7 이행선·양아람, 「아리요시 사와코(有吉佐和子)의 번역 수용과 한국 사회의 '복합오염': 환경재난과 환경운동(권숙표, 최열)」, 『대동문화연구』 100집(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7), 509-540쪽.



내가 69년에 램프 E. 램의 『핵전쟁(Kill and OverKill)』을 번역, 출간했을 당시 한국에서는 반핵의 의미도 모르던 때였다. 나는 램의 저서를 통하여 오늘을 사는 지구인에게 가장 긴요한 과제는 ‘핵에너지’를 거부하는 일임을 배웠고, 그 후로 힘들고 외로운 자리에서 아무런 호응도 없는 반핵운동을 해오면서 미국의 램을 위시하여, 미국 일백만 반핵시민의 워싱턴행진과 미국 반핵의료인들의 평화운동에서 힘을 얻었고 격려의 말을 들었던 것이다. 미국의 원자물리학자인 램프 E. 램은 언제나 나의 곁에 있어서 나를 가르쳐 주었다.<sup>8</sup>

실제로 표문태는 1969년 이 책을 번역하던 ‘당시 한국사회는 반핵의 의미도 몰랐다’고 회고한 바 있다. 인용문의 그 이후의 내용(미국시민과 의료인의 반핵 운동)은 1980년대의 상황이다. 램 박사의 논의를 기반으로 표문태는 자신의 핵 인식을 확장해 나갔다. 다만 이 번역은 직역이 아니었다. 원서명은 『살육 그리고 과잉 살육(Kill and overkill)』(1962)이었다.<sup>9</sup> 이 책이 이듬해 일본에서 『핵전쟁이 되면(核戦争になれば)』(1963)<sup>10</sup>으로 번역되었는데, 표문태는 이 일본어판을 한국에서 『핵전쟁』(1970)으로 제목을 바꿔 출판했다.<sup>11</sup> 이렇게 바뀐 덕분에 오히려 한국의 독자는 책의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책은 책의 제목이 보여주듯 핵 문제 중에서 ‘핵무기’를 다룬 서적이었다.

1962년 미국에서 이 책이 간행될 무렵, 1960년에는 프랑스의 사하라 사막 핵실험 개시가 있었고 1961년 11월 유엔총회는 아프리카 비핵지대화

8 표문태 외, 『아시아를 비핵지대로』(일월서각, 1987), 3쪽.

9 Lapp, Ralph Eugene, *Kill and overkill: the strategy of annihilation*(New York, Basic Books, 1962.10).

10 ラリフ.E. ラップ 著, 八木勇 譯, 『核戦争になれば』(東京: 岩波書店, 1963).

11 표문태는 번역하면서 일본어판에 램 박사가 쓴 「일본의 독자에게」를 「저자 서문」으로 제목만 바꿔 한국어판에 실었다. 이 글은 책의 주장을 반복한 것이어서 제목이 바뀌었지만 별다른 지장은 없었다.

를 촉구했으며 1961년 소련 핵실험과 1962년 쿠바 위기 및 핵전쟁 공포로 핵정치의 갈등과 현실이 가시화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이 책이 1963년 간행될 때, 부분핵실험금지조약(1963.8)<sup>12</sup>과 소련의 핵실험 재개(1961)를 둘러싼 공산당과 사회당의 분열로 제9회 원수폭금지세계대회가 열리지 못했다. 사회당계는 부분핵실험금지조약을 지지했지만 공산당계는 ‘지하 핵실험은 조약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조약을 반대하고, ‘사회주의 국가의 핵무기는 침략방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사회당계열의 그룹은 1965년 2월에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겐쓰이킨, 原水禁)를 따로 결성했다. 또한 사회당 계열의 활동가나 의사들은 핵실험 반대운동이라는 틀에서 ‘원전문제’로 중심축을 옮겨가고 있었다. 당시 일본에서 원전이 이제 막 만들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전 내부 노동자의 피폭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 문제를 관심 대상으로 삼았다.<sup>13</sup> 이러한 일본 상황에 비추어보면 한국은 아직 원자력 발전소가 없었다. 그래서 표문태는 번역 당시 핵무기에만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번역 작업 직전에는 1968년 4월 22일 중남미 33개국의 틀라텔롤코 조약(라틴아메리카 비핵지대 조약)이 발효했다. 세계 최초의 비핵지대 조약으로서 1962년 쿠바 위기를 계기로 중남미 지역 비핵화 구상이 제기되었으며, 1963년 유엔 총회에서 라틴아메리카 비핵화를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된 후 1967년 2월 14일 조약이 서명되고 이듬해 발효되었다.<sup>14</sup> 또한 1968년 7월 1일 미국, 소련, 영국과 비보유국 53개국 대표에 의해 뉴욕에서 핵확산 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이 체결되었다. ‘일반적으로 특정

12 미국, 영국, 소련 간 조인된 핵무기 일부 실험을 금지하는 조약. 지하를 제외한 대기권내, 우주공간 및 수중에서 핵폭발을 수반한 실험금지.

13 히다 슌타로·오쿠보 겐이치 저, 박찬호 역, 『생명을 살리는 반핵』(건강미디어협동조합, 2015), 131-133쪽.

14 이삼성·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외,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살림, 2005), 11쪽.

한 지리적 영역내에서 핵무기의 제조, 사용, 보유, 배치 등을 금지하는 것을 가리키는 비핵지대(비핵무기지대)의 형성과, ‘조약을 위반하고 핵 개발이나 핵 확산을 한다고 해서 확실한 제재를 가하기 어렵고 핵 사찰의 의무를 비보유국에게만 부과하는 등 한계가 많았지만 핵확산금지조약의 체결은, 1960년대 중후반에 이미 세계적으로 핵무기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극적 차원에서 대응을 시작했다는 것을 함의했다. 표문태도 15년여가 지나 1984년 세계비핵지대화운동 국제협의회한국지부 대표를 맡았다.

또한 국내에서는 1966년 8월 8일 동양방송을 통해 원폭피해자와 적십자사, 의사들의 좌담회가 방영되었으며<sup>15</sup>, 이것을 보고 1967년 2월 11일 곽기훈, 배도환 등 15명이 모여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 창립 발기인회를 열었고 7월 10일 원호협회는 사단법인으로서 인가를 얻었다. 1968년 6월말 등록회원은 1,790명, 거주지별로 보면 서울시 421명, 부산시 34명, 경상남도 284명, 경상북도 221명, 충청북도 170명의 분포였다.<sup>16</sup> 1968년 8월 6일에는 협회 주관으로 한국에서 최초로 원폭 희생자 위령제가 조계사에서 열렸다.<sup>17</sup> 협회 관계자나 표문태의 기록을 봐도 이 당시 교류는 찾아볼 수 없다. 번역시점에서 표문태는 원자력 발전소나 제2차 세계대전 원폭피해자가 아니라 ‘핵무기’에 주목했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 속에서 랩 박사의 『핵전쟁』에 주목한 표문태는 “이 책의 장점과 흥미로운 점은 전인류가 직면한 무서운 전면 핵전쟁의 이면을 과학자로서 냉철히 파헤치고 있는 반면, 이를 구제하기 위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여, 차원 높은 현실 구제책을 그의 이상주의에서 구하고

15 장성환, 「해방 후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정체성 찾기: 원폭피해자의 발생부터 원폭 2세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7), 52쪽.

16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편찬위원회 편, 『한국원폭피해자 65년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1), 108-112쪽.

17 「억울하게 희생된 닛 달래」, 《동아일보》, 1968년 8월 6일자, 7면.

있다.”<sup>18</sup> 핵전쟁의 이면을 파헤친 책이라고 지적했듯이 램 박사는 미국사회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저자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핵에 대한 무지’다. 일반대중은 핵전쟁, 핵무기 제조, 발전, 규모 등 아는 게 없다. 심지어 의회조차도 핵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과학자로 구성된 평의회가 조직되어 의회에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램 박사는 “국민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무지해서는 안 되고 군비경쟁과 국제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류소생의 길은 ‘군축’만이 해답”<sup>19</sup>이라고 주장했다.

핵무기의 위험성을 증명하기 위해 램 박사는 ‘핵무기 성장사’와 ‘핵억제력론’ 그리고 ‘핵무기 피해’를 제시했다. 미국에 이어 1949년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핵무기 실험이 촉진되어 1952년 수소폭탄의 시대가 열렸다. 또한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소규모 전쟁을 위한 전술핵무기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1954-1958년은 신무기 실험이 급증했다가 1958년 말 소련 등 핵보유국이 자발적 핵실험 정지를 하지만, 미국 U2형기의 월경비행을 통한 소련 감시에 충격을 받은 소련이 1961년 가을 핵실험을 재개하고 폭탄 개발을 확대했다. 그래서 램 박사는 “1961년을 군비전환의 전환기”<sup>20</sup>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군비 확장은 핵억제력론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1948년 윈스턴 처칠이 침략을 억제하고 전쟁을 막기 위한 핵무기의 증강 정책을 발언한 이후 핵억제력이 미국 정책의 기본이 되었다. 소련은 공격 목적이 아니라 방위 목적의 ‘최소한의 억제력’을 취했다. 이는 공격받았을 때 적의 산업과 도시를 파괴할 수준의 억제력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사실상 공격 목적의

18 램프 E. 램(Lapp, Ralph E) 著, 表文台 譯, 『核戰爭: 무서운 全面戰의 內幕』(玄岩社, 1970), 308쪽.

19 램프 E. 램(Lapp, Ralph E) 著, 表文台 譯(1970), 위의 책, 259쪽, 299-301쪽.

20 램프 E. 램(Lapp, Ralph E) 著, 表文台 譯(1970), 위의 책, 274쪽.

‘최대한의 억제력’ 노선이었어서 핵무기를 과도하게 생산하고 보유했다. 랩 박사는 미국이 소련 국민을 최소 25번 죽일 수 있고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절멸 가능한 양의 핵무기를 비축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1957년 헨리 키신저가 “전술적 핵무기를 사용해도 그것은 전장에만 제한하자는 ‘한정핵전쟁론’”<sup>21</sup>을 제안했지만 랩 박사는 핵무기를 보유한 채 전쟁 패배를 인정할 나라는 없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1961년 대륙간탄도탄(ICBM)의 시대가 열리면서 유인폭격기가 아니라 ‘로켓발사와 버튼’을 통한 공격이 가능해지면서 전쟁의 규모와 방식이 전혀 달라졌다. 핵무기뿐만 아니라 운반수단인 장거리미사일 개발 경쟁이 더욱더 가속화된 것이다.

따라서 핵보유국이 군축을 해야 하지만 이미 무기개발은 군수산업의 확대를 가져왔다. 무기 수출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종사자와 가족의 존재는 군부와 군수산업, 의회가 결합한 군수경제를 이루고 있다. 군비 확장을 반대하면 반역자 및 비애국자로 몰리고 군축을 주장하는 국회의원은 낙선하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라는 게 박사의 분석이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제도와 조직을 통해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핵무기 확장과 군비경쟁이 이루어지는 풍토였다. 국가안보 강화와 힘은 수량에 있다고 생각하는 군수사상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핵과 전쟁, 군사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핵전쟁』과 같은 책을 통해 지식을 습득해야 했다.

이와 같이 『핵전쟁』은 1960년대 초반까지 핵무기 전반의 지식을 제공하는 미덕과 함께 ‘방사능 피해’를 지적한 장점이 있다.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 피해를 입었지만 미국의 압력으로 피해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자칫빛 반점에 머리털이 뽑히고 피를 토하며 죽은 피폭자의 사망 원인을 몰랐다. 원인을 알게 된 것은 원폭투하로부터 10년이 지나서

---

21 랩프 E. 랩(Lapp, Ralph E) 著, 表文台 譯(1970), 위의 책, 165면.

한 젊은 의사가 피폭자에 대한 조사를 금지하고 있던 권력의 눈을 피해 방사선을 포함한 먹이를 농도를 변화시켜가면서 동물에게 먹여보는 실험이었다. 실험결과 방사선이 많은 먹이를 먹은 동물은 모두 먼저 발병하여 죽었다. 농도가 낮은 먹이를 먹은 동물은 차츰 뒤에 죽어갔다. 당시 피폭자 진료 일본 의사들은 진단을 할 수 없어 ‘원폭증’이라고 말했다.<sup>22</sup> 하지만 1968년 미국정부와 일본정부는 공동으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의 의학 적 영향에 대하여」라는 의학적 피해 연구보고를 유엔에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원폭의 영향이라고 생각되는 환자는 한 사람도 없다. 사망해야 할 사람은 전부 사망했다. 따라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피폭자에 대한 의학문제는 현재 일본에는 전혀 없다”는 내용이였다.<sup>23</sup> 일본 의학계에서도 원폭유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의 입시피폭(入市被曝)<sup>24</sup>도 잔류방사선에 의한 질병이라는 사실이 1975년에야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랩 박사는 책에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직접적인 파괴력에 압도되어 열섬광, 화염폭풍, 낙진 부작용 등이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고 식량 방사능 오염뿐만 아니라 유전상 장애를 방사선 피폭현상으로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랩 박사가 내놓은 대안을 보면 그는 핵무기 폐기론자는 아니었다. 그가 판단했을 때 미국은 소련처럼 방어 목적의 ‘최소한의 억제력’ 수준으로 핵무기 양을 감축해야 하고 공격 미사일 프로그램 역시 보복 수준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군수산업을 평화산업으로 바꾸는 문제를 고민해야 하며 핵전쟁 영향에 대해서 UN이 주최가 되어 종합적 연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22 히다 슌타로·오쿠보 겐이치 저, 박찬호 역, 『생명을 살리는 반핵』(건강미디어협동조합, 2015), 199쪽.

23 히다 슌타로·오쿠보 겐이치 저, 박찬호 역(2015), 위의 책, 92쪽.

24 원자폭탄이 터질 때는 없었으나 며칠이나 혹은 1-2주 후에 시에 들어가 피폭된 경우를 말한다.

랩 박사의 견해는 책이 간행된 1970년 전후에 한국의 미디어에 알려지기도 했다. 랩 박사는 “현대의 과학자의 위치를 중세의 성직자에 비유”<sup>25</sup>했다. 핵무기 개발 확대를 반대하다가 정부로부터 배제되는 과학자가, 수난 받은 현대성직자의 전형이라는 뜻이다. 그만큼 그는 과학자의 윤리성을 강조했다. 지금 시각에서 보면 온건한 현실주의자에 가까워 보이지만 표문태가 『핵전쟁』에서 랩 박사가 이상주의자라고 한 것처럼, 그 당시에는 핵 감축을 주장하는 수준의 발언도 쉽지 않았다. 『핵전쟁』을 쓰던 시기로부터 10여년이 지난 1971년에 랩 박사는 전기공급의 세계적 추세가 된 원자력 발전소를 두고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원자폭탄은 연쇄반응이 시작되면 조절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원자력 발전은 연쇄반응을 제어하면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폭발하지 않는다. 또한 사고를 막기 위해 원자로는 두껍게 차폐되어 있고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로는 원자로 주위의 주민에게는 방사능 오염을 주지 않을 수 있다.<sup>26</sup>

이와 같이 1970년 무렵 한국에 소개된 랩 박사는 원자력 발전소는 찬성하고 핵무기는 폐기하지 않지만 감축을 주장하는 물리학자였다.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지지하는 입장의 범주에 그가 포함된다는 것이 확인된다. 『핵전쟁』을 핵 인식의 토대로 삼은 표문태는 1975년 ‘소돔의 우화’를 빗대 핵무기와 원자전쟁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수소폭탄은 하나님 소돔을 멸한 천벌과 비유된다. 민족멸망의 원인을 “국민도덕생활의 부패”에서 찾은 그는 “위선에 찬 도덕론과 입에 발린 ‘인간성 옹호’를 늘어놓고 있는 우리 자신”을 꼬집으며 “목살 정책, 무관심주의, 회피처세로 자기만이 살찌면 그만이라는 정신풍토 속에서 번지고 있는 이른바 「극악무도」란 것이

25 「受難의 現代聖職者」, 《동아일보》, 1967년 2월 21일자, 5면.

26 「美 랩프랩博士 네 가지 危險에 解明 “原子力發電은 安全”」, 《동아일보》, 1971년 3월 8일자, 6면.

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냉혹한 자기중심주의의 줄기에서 돌아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인간에 대한 가공스런 무관심과 극도의 자기중심주의와 구체될 길이 없는 권태로운 손에 의해 히로시마 상공에 떨어졌던 원자탄의 수백 배의 위력을 가진 수소무기가 나날이 증강되고 있다.” 결국 수소탄이 터지면 “남아 있는 것은 탐욕과 잔인한 타산과 오기에 찬 승리감, 약간의 유희감정과 시니컬한 냉소, 그리고 살육된 수만 수천의 시체”다.<sup>27</sup>

표문태는 1990년 이전에 원자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 때문에 번역 5년 후에도 그의 관심은 오직 핵무기였던 것이다. 다만 1970년대 말까지는 이러한 경고 이외의 활동이나 글을 찾기 어렵다. 한국에서는 1978년 4월 고리원전 1호기가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로서 운전을 시작해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한국에서 원전은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인식되었고, 랩 박사의 변호처럼 원전의 위험성 문제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표문태도 자신의 문제의식을 확장하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그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1971.9 개칭)의 원폭피해자와도 직접적인 인연이 없었다. 1972년 10월 2일부터 1978년 3월 30일까지 손진두가 일본에 제기한 재판이 승소했다. 이로써 한국인 원폭 피해자도 건강수첩을 받고 건강관리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지만, 이미 일본 후생성의 통달 402호 행정명령(1974.7.22)으로 일본을 벗어나 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여전히 일본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sup>28</sup> 그럼에도 손진두 밀항사건(1970.12.3)이 일본사회에 충격을 주고 일본 시민단체와 지식인의

---

27 표문태, 「소돔의 寓話」(『한국문학』, 1975), 『天挑복숭아의 神話: 表文태에세이』(새발, 1979), 155-163면.

28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편찬위원회 편, 『한국원폭피해자 65년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1), 134-178쪽.



도움이 활발해졌는데<sup>29</sup> 표문태는 이 당시 원폭피해자의 일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사실 유신의 시대였던 1970년대는 문세광 저격사건(1974.8.15)으로 육영수 여사가 사망하고 각종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이어서 한국의 피폭자들이 일본에서 왔다는 사실 자체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다. 한국인이 미국에 원폭 투하의 책임을 묻기도 어려웠고 피폭자들은 자신이 방사능에 피폭된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았던 시대였다.

1970년대 표문태는 핵문제 외에도 한국사회의 개선을 위한 활동으로 매우 분주했다. 표문태는 『핵전쟁』을 낸 1970년, 5월 2일 발족한 신문학동인회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했고<sup>30</sup>, 1973년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작가회의 한국지부 창설준비위원회 대표였다. 1975년 1월 12일 그는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선거 때 언론자유를 위해 고통당하는 동아일보를 위해 성금을 하자는 건의를 했고<sup>31</sup>, 동년 2월 문인자유수호격려 시리즈 광고의 ‘양성우 시인의 건투를 격려함’에 동참했다.<sup>32</sup> 동년 3월 6일 민주회복 국민회의 서울시 지부가 서울 YWCA에서 35명의 발기인이 모인 가운데 결성될 때 표문태는 대변인을 맡았다.<sup>33</sup> 이후 그는 1976년 자유실천문인협회에 참여하고 1977년 동일방직 노임체불 대책위원, 동아투위 7·7언론자유선언위원을 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970년대 표문태는 언론, 문학, 노동,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보적인 사회참여를 실천하고 있었다. 그는 ‘반핵’이 곧 ‘반미’로 여겨졌던 1970년 원자탄 제조에 참여한 미국 시카고대 랠프

29 여기에 대해서는 오은정, 「‘제국의 신민’에서 ‘제한피폭자’로」, 『기억과 전망』 39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8), 103-147쪽을 참조할 것.

30 「『新文學同人會』·『自由作家회의』 同時에 創立」, 《동아일보》, 1970년 5월 12일자, 5면.

31 「탄식으로 끝낸 文協定總... 趙演鉉 씨 理事長 유임」, 《동아일보》, 1975년 1월 13일자, 5면.

32 「시리즈 광고 한 달째 文人自由守護激勵」, 《동아일보》, 1975년 2월 27일자, 4면.

33 「民主 국민會議 서울支部 결성」, 《경향신문》, 1975년 3월 8일자, 1면.

랩 교수의 저서 『핵전쟁』을 번역해 핵전쟁이 불러올 인류 공동체 파괴의 문제를 한국에 처음 소개했던 당사자였다.<sup>34</sup> 하지만 문예지에 거의 작품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후대 문학연구자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반핵운동의 역사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으면서 한국 반핵운동의 선구자 표문태는 사회적 기억화되지 못했다. 그 결과 그가 큰 영향을 받은 랩 박사의 저서 『핵전쟁』도 번역사에서 간과되어 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표문태의 반핵 활동이 좀 더 본격화된 1980년대는 어떠했을까.

### Ⅲ. 한반도 비핵지대화, 자주적 민족운동과 반핵평화통일

표문태는 1987년 12월 제일조선인 징용 피폭자를 다룬 『버림받은 사람들』과, 『아시아를 비핵지대로』를 편저하여 출간했고 이듬해 에세이집 『마구간의 진실』(1988)을 발간했다. 1970년 자신의 지적 기반을 세우고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핵전쟁』을 번역했다면, 1980년대 말 그의 책은 1980년대 축적된 그의 활동의 산물이었다. 이들 책에도 『핵전쟁』의 내용이 자주 언급되지만 중심은 그동안 누적된 반핵 지식과 운동의 집적물이자 산출물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환경소설 『복합오염』도 마찬가지였다. 1980년대 말 여러 가지 환경도서가 등장하면서 『복합오염』의 위상이 재배치되었다. 즉 자국에서 효과적인 환경도서가 부족할 때 『복합오염』처럼 외국의 대중적이고 대표적인 책이 번역 수용될 수 있지만, 한 국가의 다양한 사회성원이 스스로 저작을 출판하기 시작할 때 기존의 번역서의 역할과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이는 문자 그대로 특정 외국도서가 고전(古典)이

34 「반핵운동 한평생 표문태 씨 도움시다」, 《한겨레》, 1995년 12월 26일자, 21면.

되고 새로운 시대의 서적으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한국의 독자는 표문태와 다른 반핵서적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령 1987년에 원폭 실험과 피해의 사진, 그림이 실린 『원폭과 일본패망』이 출간되었고<sup>35</sup>, 소속 회원이 노벨평화상(1985)을 받았던 핵전쟁방지구제의사회(IPPNW, 1980년 설립)의 목소리가 묶인 『핵전쟁과 인류』가 간행되었다.<sup>36</sup>

1980년대 표문태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는 1983년 7월 '아시아국제반핵 문학인 히로시마 회의'에 한국 대표로 초청 받아 참석했다.<sup>37</sup> 1984년 5월 일본 요코스카에서 열린 '국제반핵반기지 평화회의'에도 고은과 함께 초청을 받았지만 이때는 참석하지 못했다. 1984년은 그가 '세계비핵지대화운동 국제협의회 한국지부' 대표가 된 해이기도 했다. 1987년 12월 그가 편저한 『아시아를 비핵지대로』도 이러한 활동의 산물이었다. 이 책의 서문에는 1986년 4월 전방입소교육 반대와 반미를 외치며 분신자살을 한 대학생 김세진 열사를 향한 애도도 있다. 1987년 같은 달에 나온 『버림받은 사람들』은 재일조선인 징용피폭자와 일본의 시민운동가, 히로시마 조선인 피폭자 협의회의 증언을 다양하게 담고 있다. 동년에 그는 문학인 193명과 함께 개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sup>38</sup> 1988년 8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발기인'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발기인 기자회견에서 취지문을 낭독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에 가담했다.<sup>39</sup> 그리고 1988년부터는 그는 여러 곳에 핵 관련 강연을 하고 다녔다. 1970년대와 달리 표문태의 핵

35 타임-라이프 북스 편집부, 『原爆과 日本敗亡』(주)한국일보 타임-라이프, 1987).

36 핵전쟁방지구제의사회 엮음, 황상익 역, 『핵전쟁과 인류: 평화를 위해 싸우는 의사들』(미래사, 1987).

37 「'아시아 문학자 대회'에 표문태 씨 초청받음», 《조선일보》, 1983년 7월 19일자, 조간 1면.

38 「문학인 百93명 改憲 촉구 성명», 《동아일보》, 1987년 4월 29일자, 11면.

39 「민간차원 통일운동 본격화», 《한겨레》, 1988년 8월 4일자, 7면.

관련 활동의 범주가 굉장히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80년대의 세계적 분위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는 영국의 부녀자들의 끈질기고 지혜로운 반핵반기지운동이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수십 만 명의 영국 부녀자들은 어린애들 등에 업고, 손을 잡고 인간 사슬을 만들어 영국에 있는 핵기지를 둘러싸고 연좌데모를 하며 “이 어린애들을 핵의 제물이 되게 할 작정인가” 하고 외쳤다. 국민들의 열렬한 반핵압력에 못 이겨 영국 노동당은 드디어 반핵반기지정책을 국민에게 공약했다. 다음에 나는 동독과 서독의 문학인들의 반핵운동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그들의 반핵운동의 성과가 같은 분단국가인 한반도에도 크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 [...]

나는 또 미국의 원자탄 제조의 일급 공로자이며 오늘은 미국에서 열렬한 반핵운동가로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랠프 E. 랩(Ralph E. Lapp) 그리고 반핵의 구호를 외치며 워싱턴을 향하여 행진한 미국의 일백만 시민 반핵시위와 의료인의 입장에서 전세계에 의료인 반핵운동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꾸준히 비핵평화운동을 전개하여 재작년(1985) 노벨평화상을 받은 미국 반핵의사들의 건투를 빌며 그들의 양심의 파동이 반핵운동의 불모지인 한국 의료인에게도 전파되기를 기원했다.

나는 또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을 거의 총망라한 반핵 1000인 위원회의 발족과 평화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진심으로 격려하고 축복했다. [...] 84년에는 일본 요코스카에서 「국제반핵 반기지 평화회의」를 개최하여 아시아 개발도상국과 태평양 연안국, 태평양 제도의 십나라 국민들의 반핵반기지운동의 이론과 실제의 정보를 교환하고 평화운동의 연대와 동지의식을 강조하고 또 이를 강화했다.<sup>40</sup>

---

40 표문태 외, 『아시아를 비핵지대로』(일월서각, 1987), 1-3쪽.

1980년대는 사실상 세계적으로 반핵 운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였다. 1979년 12월 27일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미국 카터 정부가 대소·대공 군사대결 강경정책으로 급선회했다.<sup>41</sup> 카터는 소련의 침공을 “세계 석유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기 위한 디딤돌”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세계 평화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sup>42</sup> 이후 레이건 정부의 등장과 함께 대소·대공 ‘무한 군사력증강 경쟁’ 정책이 대폭 강화되었다. 게다가 이미 1979년 12월 12일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가 1983년부터 서구 5국(서독, 영국, 벨기에, 이탈리아 및 네덜란드)에 1백8기의 퍼싱Ⅱ 미사일과 4백64기의 크루즈 미사일 등 신형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서구 각국의 반핵시위자들은 유럽에 이 같은 핵미사일이 배치되면 유럽은 ‘스스로 통제하지도 못하는 핵무기의 창고가 될 것’이며 미·소 두 초강대국의 분쟁에 휘말린 ‘가장 큰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시작했다.<sup>43</sup> 서독 배치가 예정된 1983년은 미국, 일본, 유럽 등 각국에서 반핵 시위가 절정에 달했다. 1983년은 레이건 미 대통령이 그 유명한 전략방위구상(SDI, 별칭 스타워즈)을 내세운 시기이기도 하다.<sup>44</sup>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표문태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아시아문학

41 이영희·임재경 편, 『반핵』(창비, 1988), 285쪽.

42 앨런 브링클리 저, 황혜성 외 역,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3』(휴머니스트, 2011), 505쪽.

43 「“反美(반미)”로 변진 “反核(반핵)”」, 《동아일보》, 1981년 10월 26일자, 4면.

44 존 루이스 개디스 저, 정철·강규형 역, 『냉전의 역사』(에코리브르, 2010), 308쪽; 미국은 중요한 재무장 계획에 착수했다. 1981년 8월 레이건은 중성자 폭탄을 비축 하겠다고 선언했다. 1982년 11월에는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을 위반하고 MX미사일 체제를 발표했다으며, 다섯 달 뒤에는 전략방위계획(SDI, 스타워즈)을 선언했다. 소련은 전략방위계획이 탄도탄요격미사일협정(ABMT)을 위반했다고 항의했는데, 이 주장은 근거가 확실했다.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메리카에 대한 공식적인 군사 원조와 은밀한 지원도 꾸준히 증가했다. 1985년 미국의 방위비 지출 증가분은 6퍼센트로 평화 시기 치고는 전례 없이 높았다. 토니 주트 저, 조행복 역, 『전후 유럽 1945-2005』 2(열린책들, 2019), 251-252쪽.

자 대회에 초청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81년 10월 20일 레이건 대통령이 유럽에서 제한핵전쟁 발발 가능성을 시사한 사건을 주목해야 한다. 이 발언으로 24-25일 유럽 각국에서 전후 최대 규모의 반핵 시위가 일어났고, 동독과 서독의 문학인들은 동서독이 비록 이데올로기는 다르나 미소 핵전쟁의 희생이 될 위험에 직면한 게르만 민족의 운명을 정치인에게만 맡기고 방관할 수 없다며 동과 서에서 일제히 반핵운동을 전개한 끝에 동서독 문학인 합작으로 '세계문학인 반핵평화회의'(1982.6.18-25)를 서독의 케룬에서 개최해 전세계 지식인의 반핵운동의 횃불이 되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 일본문학자의 반핵운동이 1982년 1월 '핵전쟁의 위기를 호소하는 문학자의 성명'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는데<sup>45</sup>, 같은 해 열린 케룬 회의에 참석한 일본의 반핵반전운동가들은 이 회의가 아시아가 직면한 핵위험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시 않는데 충격을 받고 1983년 7월 27-3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처음으로 '아시아국제반핵문학인 히로시마회의'를 열어 "핵의 위협과 빈곤 및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주제하에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문학인들의 평화운동을 주도했다. 이 히로시마 회의에 표문태가 한국 대표로 초청 받아 참석했던 것이다. 그리고 다음해 일본 요코스카에서 열린 '국제 반핵반기지회의'에도 초청 받았는데 표문태는 요코스카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고 요코스카 회의록을 번역해서 자신의 글과 함께 『아시아를 비핵지대로』(1987)에 담아 출간했다.

일본 문학자와 표문태 등이 케룬 회의에 아쉬워한 것은 유럽에서 (핵)미사일 철수 시위가 성공한다고 해도 그 신행무기는 유럽 대신 일본, 한국 등 아시아와 태평양 섬 일대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1980년에 이미 표문태는 서독보다 한국에 더 많은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데도

---

45 高木仁三郎 외 저, 박해전 역, 『반핵과 제3세계』(시인사, 1986), 220-221쪽.

한국인은 그 목적과 이유도 모르고 핵무기를 단순히 공산주의를 막는 무기로만 생각하는 현실을 비판한 바 있다. 미국은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만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표문태는 “전인류를 40번 전멸시킬 수 있을 만큼 핵무기를 산더미로 쌓아올리고도 사람이 잘 운영하면 위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고 위선적인 인간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무기로 기지화 된 조국을 바라보며 미·소 갈등시 한반도는 전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남·북이 무력통일 방안을 버리고 주체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46</sup> 그리고 그는 1986년 좀 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구체화했다.

1986년은 표문태가 『아시아를 비핵지대로』(1987)의 서문 첫 줄에 애도한 김세진의 분신자살이 있었던 때다. 표문태는 여기서 김세진이 “임종 직전에 남긴 유언의 첫 머리에 반핵반전운동의 필요성과 외국 핵기지의 철수를 강조”<sup>47</sup>했다고 적고 있다. 1986년 민족해방의 자민투 계열 학생운동은 상반기 투쟁을 ‘반전·반핵투쟁’과 ‘전방입소 반대투쟁’에 집중했는데, 4월 28일 서울대생 이재호와 이세진의 분신은 그 과정에서 발생했다.<sup>48</sup> 이때 NL계 학생운동 세력은 이 전방입소 훈련을 미제국주의의 용병교육으로 규정했고 반미가 대학가를 휩쓸었다.<sup>49</sup> 1985년 5월 23-26일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이 있었고, 1986년 3월 18일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4주년 기념일에는 서울대에서 ‘반전반핵평화투쟁위’ 결성식을 하고 틱스피리트 훈련 중단, 핵무기철수와 미제국주의를 몰아내자는 구호가 나왔다. 당국은 이런 움직임을 ‘북괴에 동조하는 반미, 반핵, 반전’ 논리로 규정하고 억압했다. 표문태

46 표문태, 「타고르와 정감록의 예언」(1980), 『마구간의 진실』(일월서각, 1988), 13-35쪽.

47 표문태 외, 『아시아를 비핵지대로』(일월서각, 1987), 1쪽.

48 정해구,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역사비평사, 2011), 127쪽.

49 이기훈, 「학생운동의 발전과 6월항쟁」, 서중석 외, 『6월 민주항쟁』(한울아카데미, 2017), 160-161쪽.

는 이러한 대학생의 반미, 반핵의 의지를 포착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에서 쓴 「왜 반핵운동을 해야 할까」(1986)에서 표문태는 핵의 전쟁억지력 신화를 비판하면서 “핵전쟁은 꼭 일어난다. 일어나면 소련은 자기 눈앞에 있는 미국의 대소핵전략 전초기지인 한국을 맨 먼저 강타하여 초토화하고 말 것이다. 핵보유 강대국의 원조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군사독재정부의 무분별한 탄압으로 반핵평화의 말 한마디 못하고 핵탄두 제1격의 제물이 될 위험에 직면한 한반도 남북 동족이 살아남을 길은 전국민이 하나로 뭉쳐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하여 반핵평화운동을 전개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므로 반핵운동은 민족파멸을 피하려는 구국운동이요, 자주적 민족운동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sup>50</sup> 표문태가 1984년 ‘세계 비핵지대화운동 국제협의회 한국지부’ 대표가 되었는데 1986년의 이 글에는 ‘한반도 비핵지대화’가 주장되어 있다. 외국에서도 1985년 8월 6일 서명하고 1986년 12월 11일 발효된 남태평양 비핵지대(라로통가 조약)<sup>51</sup>가 실제 형성되고 있었다.

1960년 초 랩 박사는 미국인의 입장에서 소련을 방어하기 위한 수준의 핵군축을 논했지만, 분단국가이자 미·소 냉전의 중심에 있는 한국의 지식인 표문태는 핵군축을 넘어 비핵지대까지 주창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가 반핵운동을 구국운동이자 자주적 민족운동으로 간주한 것은 미국에 종속된 한국의 정치·경제·군사적 독립, 한반도 평화를 함의했다. 이는 1980년대 제3세계의 반핵운동과도 맥이 닿아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그의 반핵활동은 1987년 민주화 이후 1988년 8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의 발기인을 하는 등 민간 평화 통일운동 가담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

50 표문태 외(1987), 앞의 책, 134-138쪽.

51 이삼성·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외,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살림, 2005), 12쪽.



그런데 한반도 비핵지대안은 1980년대 말이 되면 정치권도 일부 공감하는 사안이 된다. 1987년 9월초 대통령 선거 전 100대 국정개혁안 중 하나로 민주당이 비핵지대화안을 제시했다.<sup>52</sup> 그러자 즉각적으로 9월 15일 미국 시거 차관보가 태평양에서 비핵지대 설치 주장을 반대했으며 남한의 핵무기배치는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9월 25일 정호용 국방부 장관도 핵이 없으면 북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며 비핵지대화 논의는 비현실적이라고 발언했다. 이러한 정부당국자의 태도는 미국의 국가이기주의와 비밀주의를 지지하며 자민족 생존문제를 경시하는 반민족적 태도로 여겨지며 공분을 샀다.<sup>53</sup> 이 일이 1988년 통일운동의 하나의 자극이 된 셈이다. 1987년 12월 미·소가 전술핵무기인 중거리미사일 폐기조약(INF 협정)에 서명하면서 서구에서도 반핵평화운동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었다.<sup>54</sup>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표문태가 1980년대 말 책을 낸 밑바탕에는 세계적인 반핵 시위, 유럽과 일본의 (문학자) 국제회의, 세계비핵지대화운동 국제협의회, 한국 대학생의 반미·반핵 시위,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촉구 선언, 1988년 반외세 통일운동,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1988.2.29), ‘세계기독교 한반도 평화협의회’ 개최(1988.4.29)<sup>55</sup>

52 참고로 북한에서는 1986년 9월 6일 ‘조선반도의 비핵평화를 위한 평양국제회의’를 열어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촉구하는 평양선언을 했다. 이 회의에는 중국, 소련, 동구 및 비동맹 제국을 중심으로 약 80개국으로부터 93개의 대표단이 참가했다.

53 김승국, 『반전반핵 양키고홈』(아침, 1988), 224-225쪽; 「남북한 비핵지대화 노력 어디까지 왔나」, 《한겨레》, 1988년 11월 22일자, 5면

54 사정거리 500-5500킬로미터의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폐기 결정. 정육식, 『핵의 세계사』(아카이프, 2012), 298쪽.

55 1988년 반전·반핵·평화운동의 2대 사건이 있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의의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1988.2.29)과 인천에서 열린 ‘세계기독교 한반도 평화협의회’ 세계대회 개최(1988.4.29)이다. ‘선언’은 반전·반핵·평화운동과 기독교의 민족민주운동이 접합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세계대

등이 있었다.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 말까지 표문태는 반핵 중에서도 ‘핵무기’에 집중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1986년 4월 25일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일어나 전세계에 충격을 주었고 국내에서는 1985년 영광 원전 1·2호기가 시험가동을 시작한 이래 기형어, 조개·굴 패사, 노동자 방사능 피폭, 기형아 출산 등이 발생해 공해추방운동연합이 ‘공해추방과 반핵평화’의 기치를 내걸고 발족(1988)하고, 원전 핵폐기물 불법 매립이 문제가 되어 원전 반대 시위가 일어났지만<sup>56</sup> 원전과 관련된 표문태의 글은 없다. 『아시아를 비핵지대로』에 체르노빌과 관련해 다른 저자의 글이 실렸을 뿐이다. 전전 세대이자 한국전쟁, 고문을 겪은 표문태가 미·소 냉전과 남북의 군사 대립, 핵전쟁에 얼마나 민감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핵무기 철폐와 한반도 비핵지대화, 평화통일을 자신의 반핵운동의 가장 핵심적 가치로 삼으며 원전 문제에는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그가 『아시아를 비핵지대로』와 같은 달에 『버림받은 사람들』(1987.12)을 편저했다. 이 책의 서문에는 그가 재일조선인 피폭 징용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적혀 있다. 1983년 7월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아시아문학자 반핵평화국제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가했을 때 일본 히로시마의 언론인 히라오카 다카시(平岡敬)가 찾아와 한국인 징용자를 보살피지 않는 한국 보사부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이야기해서 그는 충격을 받았다.

---

회’는 반전·반핵·평화운동의 대중화·조직화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이 대회에서 “언제 민족을 절멸시킬지 모르는 남한의 미국 핵무기는 즉각 철폐되어야 하고, 비핵법안과 한반도 비핵지대화 선언을 위해 투쟁하여야 한다”고 결의한다. 이어 한반도 한반도 평화선언을 통해 ①정전협정은 남북상호불가침선언에 기초하여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②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 ③한반도의 핵무기는 즉각 폐기되어야 하고 한반도는 비핵지대로 되어야 한다. ④남북한 상호간의 감군과 군축을 위한 협상이 즉각 시작되어야 한다는 다짐을 다시 확인한다. 김승국, 『겨레의 칠성관 核』(황토, 1989), 37-38쪽.

56 김기진 외,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엮음, 『한권으로 꿰뚫는 탈핵』(무명인, 2014), 274-275쪽.

표문태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접촉한 것이 아니라 이 협회와 한국 원폭 피해자를 1970년대부터 도와온 일본인 히라오카와의 대면을 통해 한국인 징용피폭자를 인지하게 된 셈이다.

『버림받은 사람들』은 제1부 ‘피폭 한국인’ 14명의 증언, 제2부 일본의 언론인 히라오카 다카시(平岡敬)의 1970년대 초 한국인 피폭자 방문기의 일부, 제3부는 히로시마현 조선인 피폭자협의회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여기서 ‘피폭 한국인’ 14명은 한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피폭 이후에도 일본에 남아 거주하고 있는 재일조선인이다. 표문태가 한국원폭 피해자협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다. 그 덕분에 오히려 이 책은 독자에게 일본에서 살고 있는 재일조선인 징용피폭자의 실상을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

1980년대 한국 내 피폭자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국내에서는 1978년 3월 30일 손진두의 일본 재판 승소의 영향으로 1979년 6월 25일 한국 공화당과 일본 자민당이 ‘재한피폭자의 의료원호에 관한 3개항’에 합의하면서 1980년 11월 17일부터 재한피폭자의 독일치료가 이루어졌다. 치료비는 일본정부 부담, 도항비는 한국정부 부담, 당초 5년 계획이었다.<sup>57</sup> 하지만 치료기간이 종료되자 1987년 11월 30일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신영수 회장이 주한일본대사관을 방문하여 당시 한국에 살고 있는 2만 3천여 명(추산)의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미화 23억 달러 피해보상을 요구했다.<sup>58</sup> 마침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일본과 전후처리 문제를 논의할 때였다. 결과적으로 1990년 5월 24일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한국정부는 일본으

57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편찬위원회 편, 『한국원폭피해자 65년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1), 190쪽.

58 「被爆者 日에 23億달러 보상 요구」, 《동아일보》, 1987년 12월 1일자, 11면; 「일본에 23억 달러 청구 원폭피해자협회 소송 준비」, 《한겨레》, 1988년 6월 2일자, 7면; 「被爆의 恨」 45년 방치에 분노 폭발」, 《경향신문》, 1990년 3월 23일자, 12면.

로부터 미화 29억 달러 대신 '1991년 17억 엔, 1993년 23억 엔'을 받았다. 정부는 이 40억 엔 자금으로 일본이 발행한 '피폭자 건강수첩'을 소지한 사람에게 한 달에 10만 원의 진료비, 사망자 유가족에게 장례비 70만 원을 지급했고, 1996년 합천에 원폭피해자복지회관을 설립했다.<sup>59</sup> 이처럼 배상 성격은 아니지만 일본의 자금 지원이 결정되면서 1990년대 초 처음으로 피폭자 문제가 한국 미디어에 빈번하게 노출되었다.

이와 같은 한국의 1980년대 상황을 고려하면 표문태의 편저이자 번역서인 『버림받은 사람들』은 신영수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이 23억 달러를 요구한 다음 달에 출간된 셈이다. 그런데 표문태는 서문의 제목을 「징용 한국인 피폭자들을 위하여」라고 잡았다. 피폭자를 징용자로만 한정하는 한계가 있었다. 피폭자는 징용자 외에도 다양했기 때문에 징용피폭자만 강조하는 것은 일제의 수탈과 민족의 수난만을 강조하기 위한 민족주의적 태도이며 다른 여러 형태의 피폭자를 소외시켰다. 피폭자를 징용자로만 한정하는 인식이 지닌 한계와 그 한계에 대한 비판은, 사실 피폭운동가 사이에서는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그럼에도 이 책은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및 구술 작업이 턱없이 부족했던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재일조선인 징용피폭자 14명(경북 4명, 경남 9명, 전북 1명)을 소개하고 1970년대 초 일본인 연대자를 가시화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 IV. 맺음말: 탈핵과 사회적 기억화

표문태가 1987년 12월 두 권의 책을 내고 이듬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

59 정재정, 『주제와 쟁점으로 읽는 20세기 한일관계사』(역사문제연구소, 2014), 336쪽.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발기인 기자회견 이후 1988년 8월 24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행사의 하나인 학술세미나(주제: 세계 위기구조와 평화운동의 방향)에 토론자로 참석해 핵 관련 논쟁에 의견을 더했다.<sup>60</sup> 12월 2일에는 ‘한국사회 오늘과 내일’ 한겨레 대강연회에서 개회사를 했다.<sup>61</sup> 1991년 8-10일 케이커 서울모임의 여름 수양회(주제: ‘한반도와 반핵평화운동’)에서 표문태는 작가·반핵운동가의 자격으로 ‘한반도와 반핵운동’이란 강연을 했다.<sup>62</sup> 또한 1995년 19일 4·19혁명 35돌을 맞은 날 4·19국립묘지에서 표문태는 무연고자 4명의 묘에서 벌초를 했다. 표문태는 35년간 이들 무명열사들의 ‘묘지기’ 역할을 해왔다. 그는 평소 함께 모임을 만들어 이들의 묘지를 살펴주던 소설가 이기형, 시인 김낙영, 안산시 의원 박명훈 등 8명과 함께 묘지를 찾았는데 “이젠 몸이 안 좋아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sup>63</sup>

표 씨는 반핵은 곧 반미로 여겨졌던 지난 70년 원자탄 제조에 참여한 미국 시카고대 램프 랩교수의 저서 <핵전쟁>을 번역해, 핵전쟁이 불러올 인류 공동체 파괴의 문제를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했던 당사자다. 특히 원폭피해자들의 증언을 담은 <버림받은 사람들> 등 반핵·평화 통일을 위한 작품 활동과 함께 84년에는 세계비핵지대화운동 국제협의회한국지부 대표를 맡기도 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 반핵운동가다. [...] 그러나 최근에는 여든 살 고령에 돌봐주는 사람 없이 부인 최은연(77) 씨와 함께 안산시 고잔동 13평 주공아파트에서 자활보호대상자로 생활을 어렵게 이어가고 있다. 안산시 의원 노세극(37)

60 「한반도주변 핵 “민족 생존권 위협”」, 《한겨레》, 1988년 8월 26일자, 5면.

61 「‘한국사회 오늘과 내일’ 한겨레 대강연회 오늘 안산시 가져」, 《한겨레》, 1988년 12월 2일자, 1면.

62 「‘반핵평화’ 주제 수양회」, 《한겨레》, 1991년 8월 4일자, 9면.

63 「백발서 학생까지 줄 이은 참배」, 《동아일보》, 1995년 4월 20일자, 2면; 고은, 「나의山河 나의 삶 <152>」, 《경향신문》, 1995년 5월 7일자, 13면.

씨는 “반핵 운동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헌신해온 선생이 생계 등 여러 어려움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웠다”며 “선생의 정신을 사회에 널리 알리는 뜻에서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sup>64</sup>

건강이 안 좋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 이후 1914년생인 그는 더 이상 사회운동 관련해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았다. 1995년 12월 27일 자활보호대상자인 표문태의 생활고를 도와주기 위해 지인(한빛 노동자회와 반월노동사목, 전교조 안산·시흥지회와 한양대 총학생회 등 안산지역 6개 단체)들이 자리를 마련한 게 마지막이다. 이처럼 1990년대 그는 이미 연로했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또한 한국전쟁을 겪은 그는 1970년 『핵전쟁』 발간부터 1990년 무렵까지 한국이 미·소 갈등의 대리전이 되어 전쟁이 일어나고 핵공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왔지만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직접적인 핵전쟁의 우려가 해소되었다. 국내에서도 1992년 2월 남북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효하면서 그의 반핵활동도 마무리되었다. 그의 반핵운동은 1990년대 초중반 ‘북핵 위기’ 이전 시기까지였던 셈이다.

과거에는 ‘반핵’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탈핵’을 얘기하고, 사실 ‘원자력 발전소’도 반핵운동가들은 ‘핵발전소’라고 부른 게 수십 년이 지났다. 핵의 이용에서 한 축은 전쟁과 정치의 도구로서 ‘핵무기’가 있고 다른 한 축은 에너지정책으로 ‘원전’이 있다. 핵무기 폐지론자는 ‘핵무기의 전쟁억지력 신화, 공포에 기댄 평화론’과 싸워야 했고, 탈원전 운동가는 ‘원전의 안전신화, 경제성 신화, 핵의 평화적 이용 신화’와 맞서야 했다. 여기에 정치 상황까지 개입했다.

---

64 「반핵운동 한평생 표문태 씨 도움시다」, 《한겨레》, 1995년 12월 26일자, 21면.

1975년 히로시마현조선인피폭자협회가 결성되었지만, '시민회' 히로시마 지부는 이 조직과 관련된 인물들과 공식적인 교류는 하지 않았다. 자칫 일본을 방문한 한국 원폭피해자들에게 사상검증이라는 피해를 입히게 될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히라오카 씨도 당시를 “정치적으로 매우 억압적이고 좋지 않았던 때였다. 기독교 관련 단체에 일본인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온하게 여겨졌다. 한국 원폭피해자를 돕는 일본 사람은 공산주의에 물든 이들이라는 색깔이 덧칠됐고, 일본 시민사회운동의 일부 진영에서도 한국 원폭피해자 지원에 반감이 있었다. 손진두 씨가 일본으로 밀항해, 밀입국과 불법체류로 수감되어 있으면서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 ‘왜 외국인 범죄자에게 의료보장과 사회보장을 해야 하느냐’라는 반감도 있었다.”<sup>65</sup>

표문태는 한국의 동료나 지식인들이 자신의 반핵운동을 반미가 아니라고 의심했던 경험을 토로한 바 있다. 민주화 이전 군사정부가 수십 년을 지배한 한국이었다. 한국에 살던 원폭 피폭자도 반미로 오해받을 우려, 그리고 재일 유학생 간첩사건 때문에 피폭 및 도일 사실조차 숨기는 경우가 많았다. 군사정부 당국은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사람들이 일본의 좌익계 지식인을 만날까봐 비자를 제한하고 경계했다. 인용문에서 (1983년 히로시마에서 표문태에게 다가갔던) 히라오카 다카시가 회고하는 것처럼 일본의 시민단체나 운동가도 사상검증, 민족감정 때문에 재일조선인 피폭자나 재한피폭자를 지원하는 게 쉽지 않았다. 지금 여기에서 한국사회가 반핵, 반전, 평화를 자유롭게 논할 수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북한이 핵보유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표문태는 핵무기 철폐와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집중했던 것이다.

---

65 오은정, 「'제국의 신민'에서 '재한피폭자'로」, 『기억과 전망』 39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8), 128쪽.

하지만 표문태는 문학자이면서도 문학작품을 통한 반핵은 하지 않았다. 랩 박사가 미국 시민과 정치권의 무지를 타파하기 위해 책을 썼듯이 표문태도 문학 작품이 아니라 번역, 기록과 논설, 증언의 형식으로 책을 구성했다. 일본의 원폭문학이 원폭 순간이나 그 이후의 참상을 재현하는 데 집중했는데, 그것으로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핵보유국의 핵실험과 개발 및 비축, 배치 등을 독자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표문태 역시 소설이 아니라 에세이, 번역 등으로 지식을 보급하는 전략을 취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가 표문태의 반핵운동의 역사나 『핵전쟁』 번역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지식의 사회화는 쉽지 않은 일이다. 사회변화는 구성원 다수의 문제 인식에서 시작되는 데 그것은 지식만큼이나 '실감'이 중요하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생선 먹거리 문제의 심각성이 한국 국민에게 실감이 되면서 한국에서도 탈원전 정책이 겨우 가능해졌다. 핵무기는 북한의 핵보유로 국민에게 다가오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핵공격으로부터 자국 안전을 위해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선언했다. 예전 소련 입장과 전혀 다르지 않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미소 갈등이 북미 대치와 전쟁 위협으로 바뀐 형국이다. '방위 목적의 핵보유론'도 군비경쟁을 정당화할 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표문태의 기억의 소거는 한국사회에서 반핵운동의 축적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반핵 나아가 탈핵의 사회적 논쟁과 담론을 통한 지식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한국사회의 냉대와 정부의 무관심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오랫동안 간절히 호소해 왔다. 그래서 한국인원폭피해자운동의 역사는 '협회활동의 역사'이자 일본 시민단체 및 지식인의 지원과 연대에 의한 '재판운동의 역사'라고 한다. 즉 원전 운동, 핵무기 운동, 피폭자 운동 등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핵 문제의 각 분야의 연대와 운동 및 기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컨대 환경분야의 『복합오염』과 선각자인 권숙표, 최열의 기록도 마찬가지였다.

한국 사회를 위해 헌신한 선구적 운동가 겸 번역자에 대한 기억이 '사회적 기억'으로 온전히 전해지지 못하고 관련 종사자에게만 잠재되어 버렸다. 그러면서 선구자에게 영향을 미친 책의 독서경험도 사라졌다. 외국의 주요 서적을 번역한 해당 전문가들이 한국의 공동체를 위해 투신한 역사가 '공적 기억'화 되어야만 사회 제반 분야에서 분투하는 전문가와 시민사회세력 및 단체가 더욱 성장하고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다. 표문태와 『핵전쟁』의 존재방식은 핵 문제의 사회적 의제화를 통한 담론의 역사화, 운동의 사회적 기억화, 공적 기억 구축의 필요성을 환기한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랄프 E. 램(Lapp, Ralph E) 著, 表文台 譯, 『核戰爭: 무서운 全面戰의 内幕』. 玄岩社, 1970.

표문태, 『서러운 사람들』. 일월서각, 1978.

\_\_\_\_\_, 『天挑복숭아의 神話: 表文台에세이』. 새발, 1979.

\_\_\_\_\_, 『아시아를 비핵지대로』. 일월서각, 1987.

\_\_\_\_\_, 『버림받은 사람들』. 중원문화, 1987.

\_\_\_\_\_, 『마구간의 진실』. 1988.

ラリフ.E. ラップ 著, 八木勇 譯, 『核戰爭になれば』. 東京: 岩波書店, 1963.

Lapp, Ralph Eugene, *Kill and overkill: the strategy of annihilation*. New York: Basic Books, 1962.

### 2. 단행본

강은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한국』. Archive, 2012.

김기진 외,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엮음, 『한권으로 꿰뚫는 탈핵』. 무명인, 2014.

김승국, 『반전반핵 양키고홈』. 아침, 1988.

\_\_\_\_\_, 『겨레의 칠성관 핵』. 황토, 1989.

高木仁三郎 외 저, 박해전 역, 『반핵과 제3세계』. 시인사, 1986.

앨런 브링클리 저, 황혜성 외 역,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3』. 휴머니스트, 2011.

이기훈, 「학생운동의 발전과 6월항쟁」, 서중석 외, 『6월 민주항쟁』. 한울아카데미, 2017.

이삼성·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외,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살림, 2005.

이영희·임재경 편, 『반핵』. 창비, 1988.

정육식, 『핵의 세계사』. 아카이브, 2012.

정재정, 『주제와 쟁점으로 읽는 20세기 한일관계사』. 역사문제연구소, 2014.

정해구,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 역사비평사, 2011.

존 루이스 개디스 지, 정철·강규형 역, 『냉전의 역사』. 에코리브르, 2010.

타임-라이프 북스 편집부, 『原爆과 日本敗亡』. (주)한국일보 타임-라이프, 1987.

토니 주트 지, 조행복 역, 『전후 유럽 1945-2005』 2. 열린책들, 2019.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편찬위원회 편, 『한국원폭피해자 65년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1.

핵전쟁방지국제회의사회 엮음, 황상익 역, 『핵전쟁과 인류: 평화를 위해 싸우는 의사들』. 미래사, 1987.

히다 슌타로·오쿠보 겐이치 지, 박찬호 역, 『생명을 살리는 반핵』. 건강미디어협동조합, 2015.

### 3. 논문

오은정, 「'제국의 신민'에서 '재한피폭자'로」. 『기억과 전망』 39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8, 103-147쪽.

이행선·양아람, 「아리요시 사와코(有吉佐和子)의 번역 수용과 한국 사회의 '복합오염': 환경재난과 환경운동(권숙표, 최열)」. 『대동문화연구』 100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7, 509-540쪽.

이행선,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증언의 서사, 원폭문학: 김옥숙, 『흉터의 꽃』(2017)」. 『기억과 전망』 39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8, 148-190쪽.

장성환, 「해방 후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정체성 찾기: 원폭피해자의 발생부터 원폭2세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국문초록

이 글은 한국 반핵운동의 선구자로 간주되는 문학자 표문태(表文台, 1914-2007)의 반핵 활동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희곡, 수필, 소설을 쓴 표문태는 1970-1980년대에 반핵 운동을 했다. 표문태는 작가로서도 반핵운동가로서도 사실상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표문태는 문학지에 거의 작품을 발표하지 않고 문단의 이방인의 위치에서 작가 활동을 하며 다양한 사회운동을 했다. 1980년대까지 활발하게 사회참여를 실천한 표문태는 1970년 랄프 E 랩의 『핵전쟁』을 번역 출간했고, 1987년 두 권의 핵 관련 서적을 편저했다. 요컨대 핵이 한국에서 거의 조명 받지 않던 시기에 이 선구자는 어떤 점을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록을 남겼을까. 표문태가 포착한 핵 위협의 내용과, 그 목소리를 공론화하는 전략, 반핵의 의미를 구명(究明)해 본다.

투고일 2021. 6. 10.

심사일 2021. 6. 14.

게재 확정일 2021. 8. 6.

주제어(keyword) 원폭 피해자(Atomic Bomb Victims), 핵무기(Nuclear Weapons), 핵전쟁(Nuclear War), 핵발전소(Nuclear Power Plants), 탈핵(Denuclearization)

## Abstract

Translation(1970) of *Kill and Overkill*(Lapp, Ralph Eugene) and the Anti-Nuclear Movement of Litterateur Pyo Moon-tae  
Lee, haeng-seon

This article examines the meaning of anti-nuclear activities of Pyo Mun-tae (1914-2007), litterateur regarded as a pioneer of the Korean anti-nuclear movement. Pyo Mun-tae, who wrote plays, essays and novels, staged an anti-nuclear campaign in the 1970s and 1980s. Pyo Mun-tae is virtually unknown as a writer and anti-nuclear activist. Pyo Mun-tae rarely published his works in literary magazines, and worked as a writer in the literary world as a stranger, engaging in various social movements. Pyo Mun-tae, who actively practiced social participation until the 1980s, translated and published Ralph Eugene Lapp's *Kill and Overkill* in 1970 and published two nuclear-related books in 1987. In short, at a time when nuclear weapons were hardly lighting rod in Korea, what did the pioneer strive to publicize and record? I will figure out the contents of the nuclear danger detected by Pyo Mun-tae, the strategy of publicizing its voice, and the meaning of anti-nuclear.

